

“ 십자가는 말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형장에서 사용되는 거친 나무 기둥보다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 근동지방과 로마에서 흉악범의 사형집행틀이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자신의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바닥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혈관이 팽창하고 근육이 뒤틀리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현기증과 조갈증이 나며, 사막의 열풍은 사시각각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 같은 고통은 한두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사형수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혹은 발광하며 속히 죽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예루살렘 성 밖 살풍경한 적토박이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잔악하고 무서운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 인형도 심지어 카드도, 로봇도, 전화기도 입력된 말을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겠다고 병기를 들고 찾아왔다. 어둠의 자식들이 등과 햇불을 들고 빛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어리석게도 이성의 등불과 욕망의 몽둥이와 명예의 햇불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오늘도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누구를 찾는냐는 예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구지 모를 뿐 아니라 그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여주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께 절대 복종한 징표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동시에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라고 말을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권능이 임한다고 말을 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세상에서 실현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지혜요 권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사랑,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오늘도 십자가는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을 앞에 놓고 자신은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의 대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절규 대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죄와 고난과 사망과 악마는 정복되었다고 말을 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무엇을 이루셨나? 십자가는 말을 한다. “우리의 지옥 고난이 끝이 났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락하신 속죄 사업을 완성시키셨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성경 예언을 성취했고 사탄의 나라가 끝이 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 할 수 없다. 죄와 사망 그리고 악마를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 십자가 밑에서 승리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무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 수치, 좌절, 고통, 죄, 허물, 낙심, 공포에 빠져 의지할 곳도 버릴 힘도 없는 이가 우리 중에 있는가? 이런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60호] 2013년 3월 30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s.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4:1-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Follow and Desire”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해정, 양재성)한주(카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강화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하창범(현미산)일본, 김낙형, 오정혜(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리),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리, 수비스, 알루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통, 수르존) (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민(홍성일)말리우, 이재울(박정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브라키)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

■ 마 12:9-21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대의 은혜는 ‘궁홀’ 즉 자비입니다. 자비의 희랍어는 ‘라흠’ 이며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용서할 가치도 없는 자를 어머니의 자궁처럼 따뜻하게 수용하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1. 상한 갈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심지를 고지 않으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상한 갈대, 꺾져가는 심지는 소외되고 불쌍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혼자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 언제 부러질지, 언제 꺾질지 모르는 위기 선상에 있는 인생이 상한 갈대입니다. 세상은 이런 인생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본문에 한쪽 손에 심한 장애를 입은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의 한 손이 오그라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더 나아가 안식일을 병자하여 이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 마른 불쌍한 자에게 다가가시어 그의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와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고 날개 꺾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용납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치료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생의 최대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2.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갈대는 피리를 만들어 부는 재료입니다. 상한 갈대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져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인정받는 수제자였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상한 갈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쓰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의 영광된 교회를 세울 베드로의 권위를 거듭,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 상한 갈대를 들어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갈대는 성경을 기록했던 종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4. 상한 갈대를 왕의 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빌라도 법정에서 서 계신 예수님의 손에 로마 군인들은 왕이 잡는 홀 대신 갈대를 쥐어주고, 옹포 대신 홀포를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했습니다. 갈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왕의 홀로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한 갈대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맺는 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갈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어 우리를 주님의 홀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들려오는 소리는 뽕뽕 소리뿐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앙의 소리, 약한 자들의 만행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릴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기록하게 하셔서, 영광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84:5-7 인 도 자

찬 송 357(397) 다 함 께

기 도 김동봉 집사

성 경 갈 3: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 설 교 자

* 찬 송 354(39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하 숙 권사

성 경 막 6:45-5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의 웃가에라도” ... 설 교 자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거가 는 심지를 꼬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마 12:20)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한나 전도회 11월 월례회 / 10일(주) 오후 3시 15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리브가 전도회 11월 월례회 / 10일(주) 오후 3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3. 수능기도회 / 14일(목) 오전 8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실종교인처분 선포 행정행위 공시】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정기당회 결의에 따라, 후보 삽지로 넣어진 가효정 등 905명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종교인처분을 선포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2.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경철웅(일반외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29명	207명	194명	1,230명	13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1/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3일	헌 금	47,278,100	
	찬양운영비		9,190,000
	교회학교운영비		950,000
	교구운영비		300,000
	경 조 비		520,000
	출 판 비		450,000
	복리후생비		419,300
	통 신 비		591,600
	수도광열비		14,390
	차량유지비		238,100
	환경유지비		219,600
	수선유지비		1,298,960
	식당운영비		2,251,780
	합 계	47,278,100	16,443,730